

# 중·고령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위험 감수성의 매개 및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

최주철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원 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Mediation of Risk Sensitiv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Asset Status

Ju-Choel Choi

Professor Department for Future Innovation, Kyung He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위험 감수성의 매개 및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중·고령자의 긍정심리 자본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 중·고령 직장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 통계량, 신뢰성,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 후 AMO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구가설 검증과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심리 자본이 위험 감수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지, 복원력과 창업 의지 간의 경로는 0.042와 0.026으로 매개 효과가 지지가 되며 창업 의지에 영향은 모형 간의  $\chi^2$  차이가 7.096으로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시사점으로 중·고령자의 창업에 필요한 긍정심리 자본과 창업자산 상태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융복합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후속 연구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다른 창업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중·고령자, 긍정심리자본, 창업 의지, 위험 감수성, 자산상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who are interested in starting their own business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isk sensitiv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sset status. To accomplish the study's objective,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pproximately 250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orking in Seoul from December 1 to December 31,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Specifically,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and reliability of the constructs was assessed. Factor analysis was used to measure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developed. Finall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stablish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test of the hypotheses about the mediating, moderating, and adjusting effects using the AMOS statistical package. The results reveal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impact on risk sensitivity, and the path analysis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well as resil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howed results of 0.042 and 0.026, respectively, supporting mediating effects.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set status acted as a moderator given that the chi square difference between the models was 7.096. Thus, th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 training programs to boo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sset status in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who are preparing to establish their own busines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ver broader geographic areas and compare/analyze other variables associated with business startups.

Key Words :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ntrepreneurial intention, Risk sensitivity, Asset status

\*Corresponding Author : Ju Choel Choi(choijc@khu.ac.kr)

Received March 2,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April 2, 2020

Accepted April 20, 2020

## 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도의 지식기반기술로 더욱 지능화된 4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야에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직업창출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적응력이 부족한 중·고령자에게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성장 둔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당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부족과 고령자에 대한 부양비 증가는 복지비용 부담 문제를 만들고 사회보장의 혜택이 미흡한 중·고령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1-3].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중·고령기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창업지원 정책들은 대학생과 35세 이하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자들을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에서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창업은 사업 실패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창업자의 40%가 첫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 국내 연구에서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규진입 사업체의 3년 생존율은 30~40%대로 나타나고 있어 창업 후 기업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4]. 이처럼 창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년층과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층을 합친 연령대를 중·고령층으로 정의하고[5] 중·고령기에 창업한 기업가는 청년층에 비해 실패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1,2].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기업대비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하며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지속해서 창출 하여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으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긍정성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y Capital) 그리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였다[6].

젊은 층과는 달리 다른 고용에 대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중·고령자의 창업은 생계와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중·고령 창업가의 경우 실패 시 젊은 층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중·고령자들은 사업을 중단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고 은퇴자산의 고갈로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처럼 중·고령기 사업 실패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취약한 중·고령자 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만 아니라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려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융합기반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창업 관련 연구들은 대학생이나 청년들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창업환경요인, 개인적 특성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8-10] 중·고령자 집단에 대해서 간과해온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중·고령자 창업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중·고령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 감수성의 매개작용과 창업자의 자산상태에 따른 조절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중·고령자의 자산상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창업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긍정심리자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려는 기존 심리학 연구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인간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21세기 심리학 연구는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 기능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11]. 이런 연구의 한 부분인 긍정조직 행동(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은 긍정적인 관점으로부터 인적자원의 강점과 심리적 역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이런 역량에는 자기효능감/자신감(Self-Efficacy/Confidence),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및 복원력(Resiliency)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합하여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한다[12, 13]. 긍정심리자본과 개인 창의성의 관계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개인 창의성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4]. 희망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기초로 그것들을 직접 추구하려는 의지와 목표의 달성경로에 따른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정의된다[15].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건들의 발생을 내재적이며 항구적이고 지배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간주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특수한 상황 요인 등에서 기인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긍정적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6]. 긍정적 정서의 경험은 도전과 어려운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15]. 창업가와 관련한 긍정심리자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비판적인 사고의 강도와 빈도, 불쾌한 정도의 개인 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16]. 긍정심리자본의 통합적 개념과 창업가에 한 연구를 보면 창업가의 직감과 긍정심리자본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젊은 창업가들에게서는 평균 이상의 긍정심리자본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창업의도와 긍정심리자본은 네 가지 하위차원과 연관이 있고 긍정심리자본은 통합된 구조로 사용될 때 창업의도와 관련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19]. 이처럼 연구자들은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며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20]. 중·고령자의 긍정 심리자본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이 청년층에 비하여 낮아 사고의 유연성에 한계가 있으며 희망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특유의 편견과 고집, 고착된 권위의식, 사회적 지위에서의 집착 등이 낙관주의를 방해하며 창업에 실패 시 잔여 수명이나 자산 등의 문제로 복원력이 크게 떨어져 재도전이 어렵고, 창업 가능한 업종을 제한시키는 특징이 있다[21]. 그러나 창업현장에는 수많은 실버 창업자들이 긍정심리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업에 남은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 2.2 창업 의지

창업 의지는 새롭게 설립될 기업의 문화와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창업 의지는 잠재적 창업가가 장래에 스스로 창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22]. 창업 의지는 창업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였다[23]. 창업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을 창업 의지라고 정의하였다[24]. Ajzen 등[25]은 계획된 행동 모델 의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관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창업 의지는 계획된 행동에 대한 실행 여부

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변수로 보았다. Shapers[26]는 국가, 지역경제, 조직 등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쇄신과 회복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업 의지를 가진 창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창업은 계획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창업 의도에 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되는 부분은 살펴보면 위험 감수성, 성취 욕구, 자율욕구, 개인 통제 욕구 등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위험 감수성

창업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인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27]. 즉 급격히 변하는 경영환경으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28]. 위험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다고 해도 보다 편안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29]. 또한, 위험 감수성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30].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업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감수성은 창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31].

## 2.4 자산상태

자산상태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산상태는 가구재산과 가구소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32]. 중·고령자 창업자산은 가구 재산에 더불어 공적연금과 같은 노후소득원이 추가된다고 하였다[33].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을 보면, 전일제 근로를 하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구소득이 사업소득분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자산에 여유가 생길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34,35]. 즉 가구 자산이 많을수록 창업 후 생존 가능성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고령 창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36].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1 연구모형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이 위험 감수성의 매개를 거쳐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상태에 따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위험 감수성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추론하고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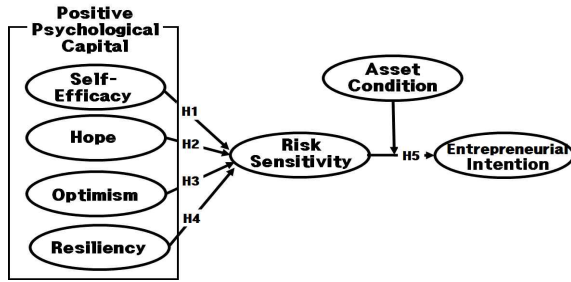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3 가설 설정

#### 3.2.1 긍정심리자본이 위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창업 의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고[37], 긍정 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을 창업가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38]. 창업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39]. 기업의 위험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는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다고 하였다[40]. 궁극적으로 자기 효능감은 창업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하였다[41]. 복원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외부 환경의 변화와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적응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42]. 낙관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창업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43].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낮은 사람들 보다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얻으려는 방법과 대안을 보다 잘 개발할 수 있으며, 또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44].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비 창업가와 관련된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요인은 위험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기효능감은 위험 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희망은 위험 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낙관주의는 위험 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복원력은 위험 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 의지는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이다[45]. 창업 의지란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의 정도인 인지된 매력,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인 인지된 타당성, 그리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천성향인 행동성향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하였다[46]. 최양림,하규수[47]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위험 감수성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위험 감수성의 매개 효과

위험 감수성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창업자적 성향임이 확실하다고 하였다[48]. 그리고 선행연구들 볼 때 긍정심리자본의 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및 복원력은 창업자들이 혁신과 도전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고[15] 위험 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험 감수성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47] 한 것으로 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난관에 봉착하는 창업환경에서 위험 감수성은 긍정심리자본창업과 창업 의도를 매개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긍정 심리자본, 위험 감수성, 창업 의지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위험 감수성은 긍정심리자본과 창업 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2.4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

Blanchflower 등[49]의 연구에서 금융자본의 부족이 창업실행에 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금융자본은 창업에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

금, 입지, 시설이라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창업자금, 입지, 시설을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창업 의지에 있어 창업가의 유 무형의 자산상태에 따라 창업 의도와 창업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하였다[50]. 그리고 창업 성공에는 창업자의 재무자산과 창업자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에도 개인이 지닌 환경적 요인인 경제적 여건, 개인의 삶과 경력, 환경, 개인의 성향, 정책적 요인, 재무적 지원 등을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1]. 따라서 중·고령 창업자들이 축적된 자산이 많으면 위험 감수성과 창업 의지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자산상태에 따라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검증된 측정 도구들을 활용하여 연구변수의 개념으로부터 실제 현상에서 측정과 관찰이 가능하도록 변수를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하위 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그리고 위험, 감수성, 창업 의지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설문지를 긍정심리자본, 위험 감수성, 창업 의지 등 3개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총 34개의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선행 연구자들이 활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여 측정하였다[13, 52].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 7개 문항, 희망은 '본인의 현재 과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함' 등 5개 문항, 낙관주의는 '과업수행 중 좌절을 극복하고 잘 수행할 수 있음' 등 6개 문항, 복원력은 '일이 어려워도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함'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위험 감수성은 박재환 등[53], 강병오 등[54] 등이 활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함' 등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업 의지는 박시사 와 강성일[55]이 활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창업가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었음' 등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지역 중·고령 직장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 및 회수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연구원들을 채용하여 사전 교육하여 회수율을 극대화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40부 가운데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하고 총 232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6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로 검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으로 집중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충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강건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과 확인적 요인으로 2단계에 걸쳐 중복으로 검증하여 연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 3회전 방법을 활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에서는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개념 신뢰도(C.R.) 값을 구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등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chi^2$ , p값, RMR, RMSEA 등 절대적합지수와 NFI, IFI, TLI, CFI 등 증분 적합지수 그리고 AGFI, ACI 등 간명 적합지수를 도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구축하고 AMO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4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매개 효과를 검정하고, 자유 모형과 제약모형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판단하였다.

## 4. 실증분석

###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남자는 141명(60.8%)으로 여자 91명(39.2%)보다 많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178명(76.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0명(12.9%), 60대 24명(10.4%) 순이었다.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 123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94명(40.5%), 대학원 졸업 이상 15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상태는 1억 이상-3억 미만이 76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3억 이상-5억 이하 60명(25.9%), 1억 미만 52명(22.4%), 7억 이상 23명(9.9%), 5억 이상-7억 미만 21명(9.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변수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복원력에 대한 자기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창업 의지의 평균은 2.6954로서 모든 독립변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중·고령층의 창업 의지 제고를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4.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 4.2.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심리자본 24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 7번 문항이 탈락하였으며 선행연구와 같이 자기효능감, 복원력, 낙관주

의, 희망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고웃값은 각각 4.855, 4.542, 3.807, 3.577이며 전체 설명력은 72.964%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성 분석결과 각각 0.928, 0.913, 0.900, 0.924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위험 감수성 4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추출된 고웃값과 분산 값은 2.859와 71.485이며, 전체 설명력은 71.485%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866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창업 의지 5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추출된 고웃값과 분산값은 4.692와 78.196이며, 전체 설명력은 78.196%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941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KMO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결과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상관행렬의 단위행렬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Division	Article	Frequency(N=232)	percent	Cumulative percentage
Gender	Male	141	60.8	60.8
	Female	91	39.2	100.0
Age	40 less than	30	12.9	12.9
	40~59	178	76.7	89.6
	60 or more	24	10.4	100.0
Education	below the high school	94	40.5	40.5
	college graduate	123	53.0	93.5
	graduate degree	15	6.5	100.0
Asset Status	less than 100 million won	52	22.4	22.4
	100-299 million won	76	32.8	55.2
	300-499 million won	60	25.9	81.0
	700-699 million won	21	9.1	90.1
	more than 700 million won	23	9.9	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Division	Minimum	Maximum	Mean	Std
Self-efficacy	1.17	5.00	3.4023	.63925
Hope	1.00	5.00	3.4759	.66718
Optimism	1.17	5.00	3.4892	.62013
Resiliency	1.33	5.00	3.5093	.66434
Risk Sensitivity	1.50	5.00	3.3082	.64244
Entrepreneurial Intention	1.00	5.00	2.6954	.87762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bserved Variable	Questionnaire Item	Self-efficacy	Resiliency	Optimism	Hope
Self-efficacy	Self-efficacy 3	.806	.241	.260	.182
	Self-efficacy 2	.770	.236	.334	.254
	Self-efficacy 5	.730	.182	.075	.347
	Self-efficacy 4	.717	.310	.281	.330
	Self-efficacy 6	.671	.326	.143	.291
Resiliency	Resiliency 1	.651	.281	.410	.215
	Resiliency 3	.246	.821	.247	.090
	Resiliency 2	.160	.814	.146	.157
	Resiliency 4	.258	.751	.180	.166
	Resiliency 5	.215	.749	.230	.270
Optimism	Resiliency 6	.308	.676	.253	.170
	Optimism 4	.247	.119	.800	.083
	Optimism 5	.189	.339	.681	.323
	Optimism 2	.304	.390	.656	.321
	Optimism 3	.343	.257	.607	.322
	Optimism 1	.167	.336	.573	.389
Hope	Optimism 6	.209	.379	.543	.418
	Hope 5	.370	.222	.283	.699
	Hope 4	.465	.237	.256	.664
	Hope 2	.499	.154	.324	.621
	Hope 3	.403	.241	.365	.620
	Hope 1	.471	.283	.262	.612
Eigen Value		4.855	4.542	3.807	3.577
% of Variance		21.111	19.747	16.554	15.552
Cumulative %		21.111	40.858	57.412	72.964
Cronbach's α		.928	.913	.900	.924
KMO / Bartlett Sphericity Test			.956/0.000( $\chi^2=4555.911$ , df=253)		

Table 4. Exploratory factor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Risk Sensitivity

Observed Variable	Questionnaire Item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2	.881	
	Risk Sensitivity 3	.863	
	Risk Sensitivity 1	.825	
	Risk Sensitivity 4	.811	
Eigen Value		2.859	
% of Variance		71.485	
Cumulative %		71.485	
Cronbach's α		.866	
KMO / Bartlett Sphericity Test			.814/0.000( $\chi^2=440.407$ , df=6)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bserved Variable	Questionnaire Item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4	.931	
	Entrepreneurial Intention 3	.913	
	Entrepreneurial Intention 2	.894	
	Entrepreneurial Intention 6	.876	
	Entrepreneurial Intention 5	.870	
	Entrepreneurial Intention 1	.817	
Eigen Value		4.692	
% of Variance		78.196	
Cumulative %		78.196	
Cronbach's α		.941	
KMO / Bartlett Sphericity Test			.892/0.000( $\chi^2=1415.481$ , df=15)

4.2.2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

2단계 타당성 검정을 위해 최대 우도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구성개념의 집중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집중타당성 검증결과, 각 연구 변수들의 구성개념은 모두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 신뢰도는 자기효능감은 0.778과 0.933, 희망은 0.783와 0.935, 낙관주의는 0.797과 0.9402, 복원력은 0.738과 0.918, 위험 감수성은 0.748과 0.922,

Table 6. Convergent validity test results

Variable	Questionnaire Item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Factor Loading	Error Variance	AVE	Construct Reliability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1	1			0.759	0.262	.748	.922
	Risk Sensitivity 2	1.276	0.097	13.168	0.857	0.224		
	Risk Sensitivity 3	1.079	0.086	12.512	0.815	0.165		
	Risk Sensitivity 4	0.955	0.087	10.921	0.719	0.19		
Self-Efficacy	Self-Efficacy 1	1			0.801	0.182	.778	.933
	Self-Efficacy 3	1.069	0.073	14.642	0.841	0.181		
	Self-Efficacy 4	1.149	0.071	16.145	0.903	0.227		
	Self-Efficacy 6	0.963	0.077	12.56	0.75	0.186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1	1			0.832	0.256	.805	.943
	Entrepreneurial Intention 2	1.067	0.06	17.646	0.905	0.239		
	Entrepreneurial Intention 3	1.124	0.063	17.87	0.913	0.157		
	Entrepreneurial Intention 4	1.084	0.066	16.406	0.866	0.099		
Hope	Hope 1	1			0.852	0.165	.783	.935
	Hope 3	0.926	0.058	16.084	0.839	0.163		
	Hope 4	0.974	0.058	16.733	0.859	0.29		
	Hope 5	0.935	0.061	15.338	0.815	0.169		
Optimism	Optimism 2	1			0.883	0.151	.797	.940
	Optimism 3	0.872	0.057	15.22	0.801	0.162		
	Optimism 4	0.762	0.065	11.647	0.672	0.198		
	Optimism 5	0.843	0.056	14.936	0.792	0.126		
Resiliency	Resiliency 2	1			0.771	0.312	.738	.918
	Resiliency 3	1.108	0.079	13.967	0.867	0.188		
	Resiliency 4	1.049	0.08	13.037	0.816	0.187		
	Resiliency 5	1.046	0.078	13.429	0.837	0.278		

Table 7. Discriminant Validity Test Results

Observed Variable	Self-efficacy	Hope	Optimism	Resiliency	Risk Sensitivity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efficacy	<b>.882</b>					
Hope	.803	<b>.885</b>				
Optimism	.705	.741	<b>.893</b>			
Resiliency	.628	.600	.624	<b>.859</b>		
Risk Sensitivity	.643	.606	.594	.545	<b>.865</b>	
Entrepreneurial Intention	.470	.434	.381	.479	.533	<b>.897</b>

Gothic is the square root of AVE

창업 의지는 0.805와 0.943로 나타나 모두 검정기준을 충족하였다.

관별 타당성 검정결과, Table 7과 같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이 각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관별 타당성 또한 충족되었다.

#### 4.2.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법칙 타당성 검정

본 연구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위의 Table 7과 같다.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연구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여 법칙 타당성도 충족하고 있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에 대한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모두 VIF가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변수 간 상관계수가 높은 편이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정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Table 8과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 과 GFI, RMSEA 등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절대적합지수와 NFI, RFI, IFI, TLI, CFI 등 기초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증분 적합지수 그리고 모델이 얼마나 심플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AGFI 등 간명 적합지수를 사용하여 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본 연구모형은 관측변수 일부를 제거하고, 창업 의지 1번 문항과 4번 문항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높였으며,  $\chi^2$ 과 GFI



Table 8. Research Model Fit Test Results

Goodness-Of-Fit Indices		Reference value	Measure
Absolute Fit Indices	CMIN(d.f., p)	p>.05	384.385(237, p=.000)
	RMR	.05 or less	.034
	GFI	.9 or more	.886
	RMSEA	0.1 or less usually .08 or less good .05 or less excellent	.050
Incremental Fit Index	NFI	.9 or more	.917
	RFI	.9 or more	.905
	IFI	.9 or more	.968
	TLI	.9 or more	.963
	CFI	.9 or more	.968
Parsimonious Fit Index	AGFI	.9 or more	0.853
	ACI	The lower between the two models, the better	510.386

Table 9.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on Risk Sensitivity

Division	Path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s
H1	Self-efficacy → Risk Sensitivity	+	0.349	0.154	2.275	0.023	Accept
H2	Hope → Risk Sensitivity	+	0.103	0.143	0.724	0.469	Reject
H3	Optimism → Risk Sensitivity	+	0.112	1.02	0.455	0.308	Reject
H4	Resiliency → Risk Sensitivity	+	0.177	2.282	2.492	0.023	Accept

지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으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56, 57].

#### 4.4 가설검정

##### 4.4.1 긍정심리자본이 위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위험 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가설 4를 지지하고 있다. 가설 1과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349와 0.177, 2.275와 2.282로서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그러나 희망과 낙관주의가 위험 감수성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위험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21, 24]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4.4.2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지지하고 있다.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765와 7.556으로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위험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25-27]

Table 10. The Effect of Risk Sensitivity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Division	Path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s
H5	Risk Sensitiv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765	0.101	7.556	***	Accept

\*\*\* $p < 0.01$

Table 11.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s significance test of Risk Sensitivity

Division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ignificance	Results
H6	Self-efficacy → Risk Sensitiv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363*0.606= 0.220	0.042	Accept
	Hope → Risk Sensitiv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125*0.606= 0.076	0.487	Reject
	Optimism → Risk Sensitiv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135*0.606= 0.082	0.617	Reject
	Resiliency → Risk Sensitiv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205*0.606= 0.124	0.026	Accept

Table 12. Result of adjustment effect test of asset condition

Division	Path	Group of Less Than 300 Million Won				Group of Over 300 Million Won				Results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H7	Risk Sensitiv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	0.627	0.115	5.43	***	1.240	0.202	0.202	***	Accept
	Free Model(CMIN=1727.965 d.f.=480), Constraint Model(CMIN=1735.476, d.f.=481)									

\*\*\*p<0.01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5. 결론

### 4.4.3 위험 감수성의 매개 효과

본 연구는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 감수성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과 창업 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가설 6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설 6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지, 복원력과 창업 의지 간의 관계를 위험 감수성이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지, 복원력과 창업 의지 간의 경로는 0.042와 0.026으로서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여 매개 효과가 있음이 최종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희망과 낙관주의는 0.487와 0.617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이는 희망과 낙관주의는 위험 감수성과 상반되는 심리작용 영향으로 보인다.

### 4.4.4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

본 연구는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상태에 따라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7을 지지하고 있다. AMOS에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집단별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델과 제약하지 않은 자유 모형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자유도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chi^2$ (CMIN)의 감소가 자유도 감소분보다 커야 하므로 자유도 1당  $\chi^2$ (CMIN)의 감소가 3.84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조절 효과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순 자산 평균은 3.5억 원으로 나타났다[3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산상태를 3억 미만 집단과 3억 이상 집단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가설 7을 검증한 결과,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유 모형과 제약모형의  $\chi^2$  차이가 7.511이므로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인구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대다수가 낮은 저임금의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중·고령 창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고령자들은 그동안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으나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를 위한 부분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고령자 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 감수성에 대한 매개 효과와 청년창업자와 다른 특징인 자산상태에 대한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위험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위험 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 감수성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지, 복원력과 창업 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표본을 자산상태에 따라 3억 미만 집단과 3억 이상 두 개의 집단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검증한 결과,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산상태에 따라서 조절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위험 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기관에서 자기 효능감과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학과 융합된 교육 과정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산상태가 창업 의지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 창업자의 자산상태 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을 위한 창업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 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하여 보다 편리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 창업자는 다른 연령층 창업과 달리 그동안 축적된 자산의 상태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창업하는 데는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 심리적 창업 의지를 높이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실증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을 서울지역 중·고령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표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긍정 심리자본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하여 위험 감수성의 매개 효과와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개인적인 심리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다면 보다 좋은 실증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Taylor, M. P. (1999). Survival of the Fittest? An Analysis of Self-employment Duration in Britain. *The Economic Journal*, 109(454), 40-155.
- [2] J. Zissimopoulos & L. A. Karoly. (2007). *Work and Well-Being Among the Self-Employed at Older Ages*. Washington, DC: AARP.
- [3] Q. Gu. (2009). *Self-Employment among Older Workers: Assistance Programs, Liquidity Constraints and Employment Patterns..* Santa Monica, CA: Pardee Rand Graduate School.
- [4] J. H. Lee & J. S. Yang. (2012). *Recent Development on Small-Sized Businesses in the Industrial Sector with Low Productivity*,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5] J. Y. Jang. (2000).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aged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6] F. Luthans, K. W. Luthans & B. C. Luthans.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7] E. R. Rogoff. (2008). *The Issues and Opportunities of Entrepreneurship After Age50*, Occasional Papers Number 5(June). AARP.
- [8] I. C. Yoon. (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 [9] K. T. Kim. (2019). Domestic Research Trend of College Students'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Korea Convergence Society*, 10(7), 199-211.
- [10] J. K. Lee & Y. W. Seo. (2019).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Absorptive Capacity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185-195.
- [11] D. S. Lee, B. S. Cho, K. T. Kim, S. K. Kim, I. S. Lee & Y. D. Choi. (2009). A New Approach to Management Studies : Application of Positive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7(2), 307-339.
- [12] F. Luthans. (2002).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1), 57-72.
- [13] F. Luthans & C. M. Youssef.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14] H. R. Lee, Y. J. Baek & E. S. Ki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Individual Creativit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Cogni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2), 145-168.
- [15] C. R. Snyder, C. Harris, J. R. Anderson, S. A. Holleran, L. M. Irving, S. Sigmon, L. Yoshinobu, J. Gibb, C. Langelle & P. Harney.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16] C. M. Youssef & F. Luthans. (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Journal of management*, 33(5), 774-800.
- [17] A. Ong, C. Bergeman, T. Bisconti & K. Wallace. (2006). Psychological resilience, positive emotions, and successful adaptation to stress in later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4), 730-749.
- [18] O. S. Umukoro & D. E. Okurame. (2017). Exogenous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uition and the mediatory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among potential youth entrepreneurs.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7(1), 19.
- [19] S. J. Kwon. (2017). The impact of leaders' communication styles on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18(1), 25-47.
- [20] F. Contreras, I. D. Dreu & J. C. Espinosa. (2017).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Exploratory Study, *Asian Social Science*, 3, 80.
- [21] L. S. Jung. (2008). Study on efficient application of elderly human resource through the aged for start busin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25, 143-169.

- [22] J. M. Crant.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23] S. I. Kang, S. H. Oh & P. S. Yang. (2007). Relationship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A case of Jeju tourism businesse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2(1), 487-504.
- [24] H. Kim. (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DOI : 10.16972/apjbve.7.1.201203.263
- [25] I. Ajzen. & M.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26] A. Shapero. (1981).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Vesper,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
- [27] H. C. Koh (1996). Testing hypothese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 [28] D. F. Kuratko & R. M. Hodgetts. (2007).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Practice*. Mason, OH: Thomson.
- [29] S. B. Sitkin & L. R. Weingart. (1995). Determinants of risky decision-making behavior: A test of the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s and propens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6), 1573-1592.
- [30] R. H. Brockhaus Sr. (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 [31] J. A. Timmons & S. Spinelli. (2007).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urr Ridge, IL: Irwin.
- [32] D. Holtz-Eakin, D. Joulfaian & H. S. Rosen. (1994). Sticking it out: Entrepreneurial Survival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1), 53-75.
- [33] Q. Gu. (2009). *Self-Employment among Older Workers: Assistance Programs, Liquidity Constraints and Employment Patterns*. Santa Monica, CA: Pardee Rand Graduate School.
- [34] Z. Lin, G. Picot & J. Compton. (2000). Entry and Exit Dynamics of Self-employment in Canada. *Small Business Economics*, 15, 105-125.
- [35] Weber, P. & Schaper, M. (2004). Understanding the Gray Entrepreneur.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2(2), 147-164.
- [36] B. H. Lee (2006). *Senior Renaissance The Rise of the Age: New Opportunities and Utilization in Aging Age*. Korean Economic Review, 43.
- [37] C. H. Jin. (2017).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start-up intention among young startup entrepreneurs: A cross-cultural comparison. *Chinese Management Studies*, 4(1), 707-729.  
DOI : 10.1108/cms-06-2017-0162
- [38] R. A. Baron, R. J. Franklin & K. M. Hmielesk. (2016). Why entrepreneurs often experience low, not high, levels of stress: The joint effects of selection and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Management*, 42(3), 742-768.
- [39] R. G. McGrath. (1999). Fall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40] J. H. Cho & C. J. Kim. (2014). The Effects of Student's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17(2), 109-126.
- [41] B. Bird.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42] F. Luthans, G. R. Vogelgesang & P. B. Lester. (2006). Developing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resiliency.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5(1), 25-44.
- [43] G. Dushnitsky. (2010). Entrepreneurial Optimism in the Market for Technological Inventions. *Organization Science*, 21(1), 150-167.
- [44] F. Luthans & C. M. Youssef.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33, 143-160.
- [45] R. Baron. (2008).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328-340.
- [46] A. Shapero & L. Soko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 Kent*, CA; Sexton, DL y Vesper, KH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72-90.
- [47] Y. L. Choi & K. S. Ha. (2012).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of retired office-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195-212.
- [48] S. B. Sitkin & L. R. Weingart. (1995). Determinants of risky decision-making behavior: A test of the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s and propens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6), 1573-1592.
- [49] D. G. Blanchflower & A. J. Oswald. (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2.
- [50] M. H. Son & J. Y. Lee. (2007). A Study of Inauguration System of a Successful Food Service Enterprise. *Korean Academy of Foodservice Industry and Management*, 3(3), 101-116.
- [51] Y. S. Jo & S. H. Kang. (2015). A Structural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limate, and Job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123-153
- [52] D. R. Gnyawali & D. S. Fogel. (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53] J. W. Park & M. J. Choi. (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DOI : 10.16972/apjbve.11.2.201604.9
- [54] B. O. Kang, J. S. Kim & S. S. Ahn. (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f Franchisor's CEO on Franchisor's Performance.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15(4), 10, 87-117.
- [55] S. S. Park & S. I. Kang. (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1(2), 187-204.
- [56] M. W. Browne &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A, Long JS, editor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Beverly Hills, CA: Sage, 111-135.
- [57] P. M. Bentler.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최 주 철(Ju-Choel Choi)

[경력]



- 1988년 2월 :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사)
- 2005년 8월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원 부교수

- 관심분야 : 추천시스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데이터마이닝
- E-Mail : choijc@khu.ac.kr